고통 받는 '악업의 과보' 참회로 끊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③ 참회 대상의 근거와 무지 시 문제점

다음으로 반야 참회의 참회 대상에 대한 근거를 소개하면서 참회의 기원과 악업의 과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참회 대상이란 참회를 해야 할 악업을 말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오계(五戒)와 십악(十惡)이다. 오계는 불자들이 처음 수계할 때 받는 기본적인 계율이며, 십악은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천수경〉의 참회 항목이다.

오계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 근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불살생(不殺生) :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② 불투도(不偷盜) :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③ 불사음(不邪婬) : 잘못된 음행을 하지 말라(단, 출가자는 음행 금지).
④ 불망어(不妄語) :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불음주(不飮酒) : 술을 마시지 말라.

출가자와 재가자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율의 항목 수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근본이 되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은 공통적이며 이것을 어기는 행위는 악업이 된다.

이 오계와 비슷한 내용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십악[열 가지 악업]이 있다. 이것은 위의 오계 중에서 ①②③을 어긴 행위를 몸으로 지은 악업이라고 해서 신업(身業), ④를 어긴 행위를 말로 지은 악업이라고 해서 구업(口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업을 다시 망어·기어·양설·악구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마음으로 짓는 악업인 탐애[탐욕], 진에[성냄], 치암[어리석음] 세 가지를 의업(意業)이라고 하여, 총 열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십악에 포함된 의업(탐진치)은 근본불교의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正見)과 정사(正思)에 위배되는 마음의 움직임인데, 이것이 대승불교에 와서 참회에 포함된 것이다. 또 십악에는 음주가 빠져 있지만 오계에는 음주가 포함돼 있는데,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취지에 따라 반야 참회에는 음주가 참회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악업을 짓지 말고 계를 지키라고 강조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 얻은 천안통과 숙명통으로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의 실상을 보시고, 중생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자기가 지은 악업의 과보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즉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과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악업을 지으면 우선 이 현실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면 교도소에 가야 하고, 잘못된 이성 관계를 갖게 되면 가정 파탄이 오며,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건강, 수명, 재산, 명예, 화목한 가정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할 내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다음 죽어서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에 가서 또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도 그 과보가 이어진다. 살생에는 단명하거나 몸이 아픈 과보가 따르고, 도둑질을 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며, 삿된 음행을 했으면 부정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상태 역시 고통이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아 이렇게 나쁜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자신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반복해서 악업을 짓고 고통을 계속 겪는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천수경〉에서는 이런 악업을 '중죄(重罪)', 즉 '무거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재가의 오계 어기는 행위는 악업
십악과 달리 음주도 반야 참회 대상

악업 과보로 인한 고통 안 받으려면
계율 지키며 원인 되는 행위 금해야

불가피한 악업엔 참회로 고통 소멸
참회 대상 정확히 알고 자기 성찰 要

과보로 오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최소한 몸과 말로 짓는 이 다섯 가지 악업을 짓지 말라는 조항을 불자들의 기본 계율로 제정하신 것이며, 수행자들에게는 그 악업의 원인이 되는 의업도 정화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악업을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회라는 제도를 알려 주셨다. 자신이 몰랐거나 불가피하게 악업을 지은 경우에는 부처님이나 여러 스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뉘우치면 그 악업의 과보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나아가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공덕을 지어 미래에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회의 기원이다.

만약 악업을 지었는데도 참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죄는 더욱 깊어지고 과보는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는데 참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다. 더 큰 악업에 따르는 과보는 더욱 심한 고통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참회는 과거의 악업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을 소멸하고 미래의 행복을 기약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즉, 불교 신행의 근본이 바로 참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현실에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겪는다면, 자업자득의 원리를 곰곰이 새기면서 자신이 모르는 과거에 악업을 지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통이 훨씬 가벼워진다.

다음에는 참회 대상을 정확하게 모를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행위가 참회할 악업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참회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업은 더욱 깊어지고 과보는 더욱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위와는 반대로 참회를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 참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불필요한 자격지심이나 죄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소심한 체질이 되거나 소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역시 고통으로 귀결된다. 불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셋째, 참회 대상을 잘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게 된다. 이것이 쌓이면 겉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이 역시 고통이다.

넷째, 참회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절에 오래 다니면 자신의 내면에서 성숙한 신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껍데기 신행'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절에 몇십 년 다녔다거나 삼천배를 몇 번 했다는 사실을 대단하게 자랑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스님과 잘 안다거나 신도회에서 어떤 감투를 쓰는 것을 마치 불교 신행의 결실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행을 하면서도 내면에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신행에서 참회를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 · 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